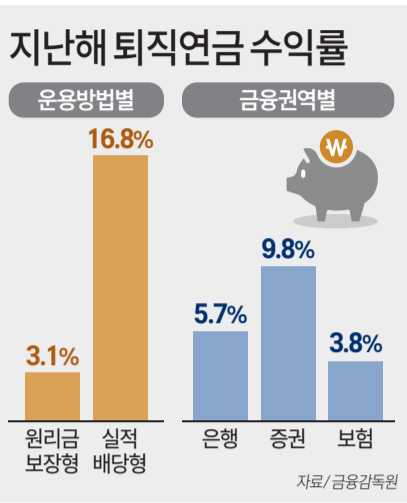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 실적배당형 투자하면 수익률 17%

고용부-금감원 '퇴직연금 투자 백서' 실적배당형 상품, 3년 만에 2배 ↑ 원리금보장형 75%... 지속 감소세 전체 연간 수익률 6.47% '최고치' 증권사 수익률 가장 높아... 9.79%



퇴직연금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내 증시 강세와 함께 ETF(상장지수펀드),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퇴직연금의 투자 패러다임이 예금 중심에서 자산배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31조7000억원)보다 69조7000억원(16.1%) 늘어나며 400조원을 돌파한 지 1년 만에 500조원 시대를 열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IRP 적립금은 130조9000억원으로 1년 새 32.6% 증가했다. 확정기여형(DC)과 기업형 IRP를 합친 적립금은 141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와 IRP 비중은 전체의 54.3%로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투자 방식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전체 적립금의 24.6%(123조3000억원)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원리금보장형은 여전히 378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지만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ETF가 퇴직연금의 대표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금액은 4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1.9% 증가했다. 실적배당형 자산의 39.6%를 차지하며 사실상 핵심 투자 수단으로 부상했다.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잔액은 1년 만에 317.6% 급증했다.

수익률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퇴직연금 전체 연간 수익률은 6.47%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3.09%에 그친 반면 실적배당형은 16.8%를 기록해 5배 이상 높은 성과를 냈다. TDF의 경우 13.7%의 수익률을 올리며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의 두

배를 웃돌았다. 금융권역별로는 증권사가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지난해 증권사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9.79%로 은행(5.70%), 생명보험(4.53%), 손해보험(3.81%)을 크게 앞섰다. 실적배당형 비중이 45.2%로 다른 권역보다 높았던 것이 주요했다.

수익률 격차는 운용 방식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상위 10% 가입자는 적립금의 84%를 실적배당형에 투자해 평균 19.5%의 수익률을 거뒀다. 반면 하위 10%는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74%에 달했고 수익률은 0.5%에 그쳤다. 금감원은 "자산 운용에 실패했다기보다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수익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국민연금(19.9%)이나 미국·일본 주요 연기금(각각 12%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이 75.6%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후 자산 운용에 대한 관심과 투자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해 상품 선택부터 인출 전라까지 실제 사례 중심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운용 현황을 공개해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한투證, 금융상품 잔고 100조

지난해 연간 17조 3700억 순유입 글로벌 금융사와 차별화 상품 선택 채권·발행어음·IMA도 핵심 경쟁력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 100조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투자상품과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앞세워 개인 자산관리 시장에서 빠르게 고객 기반을 확대한 결과다.

20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달 기준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41조2000억원이던 잔고는 2023년 53조4000억원, 2024년 67조7000억원, 2025년 85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4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고객 자금 유입 속도도 빨라졌다. 2022년 이후 매일 평균 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고, 지난해에는 연간 17조 3700억원이 순유입됐다. 하루 평균 약 430억원의 자금이 한국투자증권 금융상품으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고객도 빠르게 늘었다. 개인 금융상품 신규 고객 수는 2023년 8만5766명에서 2024년 13만2322명, 2025년 20만2502명으로 증가했다. 고객 구성은 20대 이하부터 70대 이상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특정 연령층에 치우치지 않았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시장 변화에 맞춘 상품 공급 전략이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칼리일, JP모건, 맨그룹, 캐피탈그룹, 얼라이언스벤처스, 뮤니크리 등 글로벌 금융사와 협업해 월지급식 상품과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등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였다. 관련 상품의 누적 판매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손익차등형 상품은 고객이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하고 한국투자금융그룹 계열사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손실이 발생하면 계열사가 먼저 부담하고, 수익이 나면 고객에게 이익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 2025년 까지 총 13개 공모펀드가 설정됐으며, 이 가운데 11개 펀드가 목표 수익률 15~20%를 달성했다.

채권과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도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금리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외 채권 공급을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했으며,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단기 자금 관리부터 중장기 투자까지 아우르는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자산관리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도 병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프라이빗뱅크(PB)를 단순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 고객의 투자 목적과 생애주기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주치의'로 육성하고 있다. 고객 성과와 관리 역량을 평가 지표에 반영해 장기적인 자산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성환 사장은 "이번 100조원 돌파는 자산 규모 확대를 넘어 고객의 신뢰가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리테일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폐휴대폰 수거·자원화 수익금 소외계층 기부

NH투자증권은 범농협 환경 분야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내(NH)서랍 속 자원순환 캠페인'을 본격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하여 진행된다. 사무실 서랍이나 가정 내에 방치된 폐휴대폰, 통신장비, 전자기기 등 폐전기·전자제품을 올바른 방식으로 분리배출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캠페인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5월 중분사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불용 처리된 핀패드, IP폰, 휴대폰 및 통신장비 등 총 300여 대의 전자제품을 우선적으로 수거해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사내 불용품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가정에서 가져온 폐가전제품도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배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폐전자제품은 E순환거버넌스의 친환경 현대화 시설을 거쳐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자원화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아동복지재단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범농협 자원순환 캠페인에는 총 29개 계열사가 참여해 폐전자제품 67톤을 수거했다. /허정윤 기자

내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정부, 투자금 일부 손실 먼저 부담 원금 미보장·5년간 자금 묶임 따져야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 판매를 시작한다. 정부가 투자금의 일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세제 혜택도 제공하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5년간 자금이 묶이는 구조여서 투자자는 상품의 위험과 조건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판매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이 투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펀드 가입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판매 준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올해부터 매년 60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자금의 60% 이상을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한다. 국민이 투자한 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일부 흡수하는 구조를 갖췄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

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적용된다. 다만 최근 3년(2023~2025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판매 기간은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10개 은행과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총 판매 물량의 20%인 1200억원은 서민 전용으로 별도 배정된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고려해 판매 첫 주(5월 22일~28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제한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ISA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판매 초기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에게 계좌 개설과 증명서 발급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안내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상품이 정책형 펀드이지만 예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가 일부 위험을 흡수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코스피는 전 거래일(7271.66)보다 62.71포인트(0.86%) 내린 7208.95,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084.36)보다 28.29포인트(2.61%) 하락한 1056.07에 마감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가가 표시되어 있다. /뉴스IS

2년 7개월 만에 반대매매 최고치 기록

금액 917억... 미수금비 비중 6%

"제 계좌에 있는 돈보다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어 매수했다니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주식 커뮤니티엔 빛을 내 주식을 샀다가 강제로 주식이 매각될 처지에 놓였다는 고민 글이 올라오고 있다. 코스피 상승장에 '빛투(빛내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제때 계좌에 현금을 채워 넣지 못했거나 빛으로 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

자 증권사들이 주식을 되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를 한다는 것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반대매매금액은 917억원으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던 2023년 10월24일(5487억원)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 비중 역시 6.0%로, 지난 3월 5일(6.5%)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장 높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6·3 지방선거, 7·17 제헌절 휴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6·3 지방선거일과 최근 공휴일로 지정된 7월 17일 제헌절에 휴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을 포함한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야간 포함), 석유·금 등의 일반상

품시장이 두 날짜에 개장하지 않는다.

다만 휴장 전날인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18시에 열리는 야간 거래는 정상적으로 실시된다.

프리에프터 마켓을 운영하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도 각각 휴장한다. /신하은 기자